

순천시, 순천만 갯벌 해안가 일제 청소 실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봄맞이 해양쓰레기 청소 540여명 참여 플라스틱·폐어구 등 약 20톤 수거

순천시는 최근 오전 7시경 저조시간에 맞춰 순천만갯벌 해안가 일대에서 봄맞이 일제정소를 실시했다.

순천만 갯벌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 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다. 올해에도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가 3,400여 마리가 월동하는 등 철새들의 소중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환경단체 등 총 5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연안 11개 어촌계 해안가를 중심으로 갈대밭 등에 떠밀려 갯벌에 플라스틱, 폐어구 등 20여톤을 수거하여 갯벌의 보전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작은 실천에 힘을 모았다.

일제정소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청소해서 한결 마음이 가볍다.”라며, “앞으로도 어업활동을 하면서 바다에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는 지난 1월에도 공무원,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해룡 와운에서 별량 용두까지 일제정소를 실시하여 24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갯벌은 미래가치를 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곳”이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조업 중인 어부들이 선박에



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조업 중 인양한 폐그물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집하장에 모아둘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전남도 지원을 받아 관내 순천만 해상에 5대의 선상 집하장을 설치 운영

하고 있다. 올해에도 거차·화포어촌계 앞 해상에 2곳을 추가 설치하여 총 7곳의 선상 집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여수시, 7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7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1위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3대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상으로, 분야별 경쟁력 지수를 평가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NCI)는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종합효감도 등 지표별 소비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종합점수 77.01점을 받아 신안, 남해, 완도, 거제 등 여러 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 경쟁력 지수(NCI) 종합평가 1위

수상 특전으로는 New York Festivals 홈페이지 여수 홍보, 국내 주요 언론사 공동광고 및 배너광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시는 '오동도와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되고, '장도'와 '하화도'가 2021년 여름가를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수요가 회복되며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은 결과로 분석했다.

관광트렌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여수의 매력을 한층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나병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시의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여수섬섬길로 대표되는 '섬 관광 활성화', '웰니스·온택트 관광 개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앞으로도 국내 해양관광의 트렌드를 선도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농협보성군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과 회천면 회령리 일대서 전개

농협보성군지부(지부장 박도재)는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회장 채기임)과 함께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일대에서 영농자재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밭에서 폐비닐을 걷고 인근 마을밭 주변의 영농폐자재 등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도재 지부장은 "농촌의 깨끗한 환경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영향평가' 업무협약

광양시가 지난 5일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영향검토제 자문 및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와 광주전남연구원 5명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광양시 2022년 인구영향검토제 대상사업 자문과 정책 제안 협업, 인구 유입·유지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 분야 공동연구와 발굴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특히, 2022년 인구영향검토제 자문은 다소 인프라가 부족한 교통·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적 추진방향을 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개 분야 전체의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에 합의했다.

또한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중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사업에 대해 인구 유지·증가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구정책 시민토론회의 발전 방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실현과정에서의 자문과 행사 참여 지원 등에 합의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인구정책사업과 시민토론회의 아젠다로도 연계해 광양시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고흥군, 영농비 상승에 따른 농가 어려움 해소 앞장

고흥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무기질비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번기 기간(3-6월)중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와 무기질(요소계열) 비료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3월 현재 휘발유의 경우 연평균 대비 49%, 경유는 52%로 가격 상승폭이 높아 영농기철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흥군은 전라남도 정책에 발맞춰 유가 상승분의 50%(6억5천만원)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기계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가 해당하며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예산 지원액은 56억원(국비21,지방비14,농협21)으로 '22년부터 농협이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협력하여 분담하고 사후 정산한다.

기동재본부

내살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